

경북TP, 국내 게임 QA분야 1위 기업 IGS, 경산 유치

- IGS 경북지사 설립, 올해 청년 일자리 100명 창출 계획-

- (재)경북테크노파크(이하 경북TP, 원장 이재훈)는 30일 오후 2시, 경산 압량에 위치한 (주)IGS(이하 IGS, 대표 양유진) 경북지사에서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, 최대진 경산부시장,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GS 경북지사 개소식을 갖고 게임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에 앞장선다.
- 이번에 문을 여는 IGS는 게임콘텐츠 분야 중 QA(Quality Assurance)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며, QA분야 업계 1위로, 국내 게임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.

◎ QA(Quality Assurance)란? : QA는 게임업계의 직종 중 하나로, 게임이 일정 수준의 품질(Quality)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 출시 이전에 각종 테스트(Test) 및 검수 작업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.

※ 구글 스토어 게임 상위 50개 중 35% 게임을 IGS가 QA 서비스 진행

- IGS는 2005년 설립한 모바일 게임 QA 및 운영지원 서비스 기업으로 현재 종사자 수는 920명이며,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두고 국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.

- 이번 IGS의 지사 유치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게임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게임 및 콘텐츠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콘텐츠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특히, 경북TP는 경상북도, 경산시가 출연하여 운영 중인 「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」 주관기관으로 청년 인재가 풍부한 경산에서 게임 기업이 필요로 하는 QA분야 전문인력 양성하고, 배출된 100여명의 QA 전문인력을 IGS와 연계하여 취업 연계할 계획이다.
- 경북TP는 IGS의 유치로 2016년에 문을 연 「경북글로벌게임센터」를 통해 게임콘텐츠 산업육성 및 콘텐츠 전문 인력양성의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
- 경북TP 이재훈 원장은 “이번 IGS 경북지사 유치를 시작으로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경북 지역에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게임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”며, “지속적이고 실용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게임 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전했다.